

전기공사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으다!

- 고용노동부, 한전, 전기공사협회, 안전보건공단 업무협약 체결
- 전력설비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 공동 추진

고용노동부 청주시청(지청장 연창석)은 3월 11일(수)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(본부장 정준수),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(회장 김민용)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이규득)와 전기공사 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, 감전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전력설비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,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전기공사 현장의 산재사망사고 예방 활동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.

연창석 지청장은 “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, 전기공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전기공사협회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낸다면 산재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 “이번 협약이 전기공사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청주시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영남 (043-299-1319)
		담당자	감독관	양일준 (043-299-1340)



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-안전보건공단-한국전력공사-한국전기공사협회 파트너십 협약서

고용노동부 청주시청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,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,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(이하 "협약기관"이라 한다)는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산재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사회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·성실) 협약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3조(협약내용) 협약기관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·지원한다.

1.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담당자 교육 실시
2. 전력설비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및 건설링
3.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사업 협력
4.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
5.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제4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)

① 각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, 청렴·윤리·인권보호·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② 각 기관은 협약이행·교류·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이 협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 효력 및 변경)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필요 시 협약기관 간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협의조정)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,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준수)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3월 11일

안전보건공단
 이규득

고용노동부
 연창석

한국전력공사
 정준수

한국전기공사협회
 김민용

본부장 정준수

충북도회장 김민용